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과 결정요인 분석\*

박현정\*\* · 손윤희\*\*\* · 김전옥\*\*\*\*

### 초 록

이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의 활용 유형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중1 코호트 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결측 사례를 제외한 1,272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에 관한 잠재 집단의 수는 4개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소속 비율은 자기주도학습 집단, 공부 병행 집단, 여가 위주 집단, 사교육 의존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프로파일을 예측하는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본인 및 부모의 희망교육수준, SES, 어머니의 근로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근로관련 대화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가 위주 집단에 비하여 공부 병행 집단, 자기주도학습 집단 또는 사교육 의존 집단에 속할 승산은 본인 및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은 자기주도학습 집단에 비하여 공부 병행 집단에 속할 승산과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이 보내는 방과 후 생활시간은 하위 그룹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며, 개인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요인이 청소년이 방과 후에 보내는 시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나타냈으며,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방과 후 생활시간, 사교육시간,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여가활동,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다항로지분석

\* 이 논문은 제 6회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신저자, first0423@snu.ac.kr

\*\*\*\* UCLA 교육학과

##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은 과도한 교육열에 치여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며, 이로 인하여 학업 및 시험 스트레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김재엽, 성신명, 장건호, 2016; 양애경, 조호제, 2009). 국제비교연구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이 다른 나라의 학생보다 학습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장상수, 2014; 최호성, 이옥연, 2010), 이와 같은 문제는 특히나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보다 심각하게 작용된다.

기존연구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과연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방과 후의 많은 시간을 공부에 집중하며 보내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동일한 양의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과 활용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어떤 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교육에 매진할 수 있으며 또는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많은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두 유형의 학습을 병행하며 학습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을 하며 보내기보다는 여가활동과 함께 균형적으로 방과 후 생활시간을 사용하거나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인터넷 및 게임 등을 하며 즐거움을 찾는 고등학생도 분명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방과 후 생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진로고민과 진로장벽 관련 경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며(허균, 2014), 그 과정에서 과중한 입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이은희, 2009).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우선순위와 여가 활동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학습 및 여가활동에 시간을 분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시간 활용 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방식이 어떠한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김동원, 2008).

청소년의 방과후 생활시간은 일차적으로 개인 주도적으로 결정되지만 부모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높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더 많은 관여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사교육 참여도나 총 학습시간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박민자, 손문금, 2007;

백병부, 황여정, 2011; 송유진, 2013). 또한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은 방과 후 시간동안 부모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부재는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부여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은 주도적으로 방과 후 생활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보내는 방과 후 생활시간은 청소년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시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평균적인 생활시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는데(김외숙, 박은정, 2012; 박민자, 손문금, 2007; 송유진, 2013; 오만석, 2005; 정하나, 김유미, 2015), 중다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다층회귀모형과 같은 전통적인 분석 방법은 변수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변수 중심적 접근법으로 연구 대상이 하나의 동질적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이라고 가정한다(Wang & Wang, 2012).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 결과는 편의된 추정치(biased estimates)를 제공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Duncan, Duncan & Strycker, 2011). 혼합 모형(Mixed Modeling)은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유한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하위 집단을 탐색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Wang & Wang, 2012).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방과 후에 보내는 생활시간 활용 유형이 하위 그룹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방과 후 생활시간이라는 연속변수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여 고등학교 3학년의 방과 후 생활시간이 하위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을 갖고 있으며,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 및 부모의 특성이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유형을 결정하는 개인 및 부모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김외숙, 박은정, 2012; 박민자, 손문금, 2007; 백병부, 황여정, 2011; 이현주, 2012; 송유진, 2013; 정하나, 김유미, 2015).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며, 각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생활시간

국민의 생활방식, 즉 생활시간 사용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1999년도부터 5년 주기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여 왔다(통계청, 2015). 주기적으로 구축된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주부, 노인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의 생활 시간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김진욱, 2006; 박수미, 2007; 오만석, 2005), 특히나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주목하여 생활시간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오만석(2005)은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 현황을 학교급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학습시간의 경우에는 평일 기준으로 자율학습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사교육에는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많은 시간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외의 생활시간의 경우에는 문화·스포츠 활동, 대중매체 이용, 취미·오락 활동과 관련된 생활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생활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생은 다른 학교급의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습에는 많은 시간을, 학습 외의 활동에는 적은 시간을 분배하여 방과 후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역시 201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4)는 평일 기준으로 학생이 평균적으로 학원 등의 사교육에 2시간 1분, 방송·인터넷 강의 수강에 1시간 21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데 2시간 4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으며, 학습 외의 활동으로 교재활동에 59분, 컴퓨터·모바일 게임에 1시간 26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특히나 고등학생의 경우, 일주일 평균 기준으로 학교 외에서 행해지는 학습에 2시간 29분, 교재 활동에 49분, 미디어 이용에 1시간 2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고

등학생은 학생(대학생 포함)의 생활시간 중에서 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학습 외의 생활시간에는 비교적 적은 시간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편, 김외숙과 박은정(2012)의 연구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와 미국노동통계국의 2009년 ATUS(American Time Use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평일 기준으로 주요 생활시간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12시간 6분)은 미국의 학생(6시간 26분)보다 학교 정규수업을 포함하여 학습에 약 2배의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학습 외의 모든 다른 유형에는 미국의 학생보다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사 노동 및 일(미국: 1시간 23분, 우리나라: 7분), 운동(미국: 47분, 우리나라: 8분), 대중매체(미국: 2시간 24분, 우리나라: 34분), 봉사활동(미국: 21분, 우리나라: 0분) 등과 관련된 생활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그 밖에도 사회활동(미국: 57분, 우리나라: 49분), 취미(미국: 40분, 우리나라: 30분)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지만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미국의 학생에 비하여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우리나라: 6시간 41분, 미국: 8시간 39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이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된 반면, 미국 고등학생은 학습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생활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하문선(2017)의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시간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수면시간, 사교육 시간, 독서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게임시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생활시간은 수면시간, 사교육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 독서시간, 게임시간 순으로 높았던 반면,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는 수면시간, 사교육시간, 게임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 독서시간 순으로 높게 나타나 시점에 따라 평균적으로 생활시간 사용 패턴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횡·종단적인 관점에서 학교급별로 생활시간을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며,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이 학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동일 집단의 평균적인 생활시간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생활시간 사용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영주 외(2005)의 연구는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중·고등학생의 생활시간 활용정도가 유사한 개인들로 구성된 하위집단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청소년은 컴퓨터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 학원에서 소요하는 시간이 가장 긴 집단,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가장 긴 집단, 숙제 및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 친구 및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가장 긴 집단 순으로 각 군집에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생활시간과 영향요인

청소년 개인의 생활시간 배분은 개인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시간 유형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TV 시청 및 게임 시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은기수, 2010; 이현주, 2006; 정하나, 김유미, 2015). 반면, 학습시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거나 여학생의 학습시간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백병부, 황여정, 2011; 이현주, 2012; 정하나, 김유미, 2015) 연구대상에 따라 학습시간에 대한 성차의 결과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개인의 희망교육수준과 관련된 경우, 백병부와 황여정(2011)은 초기의 사교육시간과 사교육 외의 학습시간에 개인의 교육포부 수준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습시간의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 및 가정요인 역시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먼저, 학습시간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학습시간은 높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학습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습시간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와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혜, 황여정, 김경근, 2010; 박민자, 손문금, 2007; 송유진, 2013). 또한,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학습시간이 낮거나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 황여정, 2009; 송유진, 2013). 학습시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 부모의 학력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기 중의 사교육 시간은 높은 반면, 사교육 외 학습시간과는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배경요인이 학습시간의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백병부, 황여정, 2011). 한편 부모의 태도와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자녀의 성취동기를 매개하여 학습시간과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김경근, 황여정, 2009;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또한 청소년의 학습은 진로준비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운, 김현희, 2014).

학습시간 외 다른 유형의 생활시간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TV 시청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TV 시청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직종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자, 손문금, 2007). 컴퓨터 및 인터넷 게임 시간의 경우, 아버지의 직종은 유의한 차이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으며, 어머니의 학력, 맞벌이 여부 등의 영향은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김우찬, 이윤석, 2009; 박민자, 손문금, 2007; 송유진, 2013).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개년에 걸쳐 진행된 종단 패널조사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인지적·정의적 발달 및 성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패널 데이터는 조사 대상에 따라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의 3개 코호트로 이루어졌으며, 각 패널은 다단계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추적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중1 패널의 6차 년도(고3시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1 패널 표본 2,351명 중 6차 년도 시점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방과 후 생활시간과 관련된 결측 사례를 제외한 1,27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sup>1)</sup>

1) 구체적으로 전체 표본 2,351명 중 6차 년도에 패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336명, 일반계고 외 (결측 3명 포함)에 재학 중인 630명, 4개 유형의 방과 후 생활시간과 관련된 결측 사례 113명을 제외하였다.

## 2. 주요 변수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의 활용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추출하여 잠재 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변수는 잠재 집단을 정의하는 4개의 생활시간 변수와 잠재 하위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생활시간 변수는 고등학생이 방과 후에 보내는 생활시간으로, 사교육시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개인여가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여가시간이란 오락을 하거나 TV 및 비디오를 시청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잠재프로파일의 결정요인은 개인 관련 요인 2개, 부모 관련 요인 4개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개인 관련 요인으로는 성별과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 관련 요인으로는 부모가 희망하는 교육수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이하 SES), 부모와의 진로관련 대화정도, 어머니의 근무 여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변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및 내용
생활 시간 <sup>1)</sup>	사교육	· 학원/과의 시간 및 학원/과의숙제 시간
	자기주도적학습	· 학교숙제 시간 및 기타 공부 시간
	친구	·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개인여가	· 컴퓨터 및 게임기 오락시간과 TV 및 비디오 시청시간
개인	성별	· 남(0), 여(1)
	희망교육수준	· 교육연수로 변환 중졸이하(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석사(18) 박사(21)
결정 요인	부모 희망교육수준	· 교육연수로 변환 중졸이하(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석사(18) 박사(21)
	부모 SES	· 교육연수로 변환한 부/모 최종학력의 z점수 · 자연로그로 변환한 연가구소득의 z점수 · 세 z점수(부모 최종학력, 연가구소득)의 평균
	진로관련대화 <sup>2)</sup>	· 아버지, 어머니와 진로관련 평균 대화빈도
	모근무	· 근무하지 않음(0), 근무함(1)

1) 생활시간은 '평일' 기준

2) 1: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가끔 대화한다, 4:자주 대화한다

### 3.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의 한 종류로 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관찰 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법이다(Muthen & Muthen, 2012).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관찰 변수들이 유사한 값을 가질 사후확률에 근거하여 개인들을 보이지 않는 하위 집단, 즉 잠재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x_i|\theta) = \sum_1^k \pi_k f_k(x_i|\theta_k)$$

위의 수식에서  $x_i$ 는 개인  $i$ 의 관찰 변수에 대한 응답 벡터,  $\pi_k$ 는 잠재 프로파일  $k$ 에 소속될 확률,  $f_k$ 는 잠재 프로파일  $k$ 에서 관찰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밀도함수이다. 여기에서  $\theta_k$ 는 집단의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로  $\theta_k = (\mu_k, \sum_k)$ 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 잠재 집단에 대하여 평균과 분산, 공분산이 추정된다(Tein, Coxе & Cham, 2013).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사후 소속 확률 등의 통계적 절차를 활용하며 집단 간 분산을 최대화하고 집단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잠재 집단을 구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Wang & Wang, 2012).

이처럼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이루어진 표본을 여러 개의 잠재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각 집단의 특성, 집단을 결정하는 요인, 집단에 따른 차이점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사교육시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개인여가시간의 4개 관찰변수를 기준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한 후, 이와 관계를 가지는 6개 예측변수를 개인요인, 부모요인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성별과 희망교육수준을, 부모요인으로는 부모희망교육수준, SES, 진로관련대화과 모근무 변수를 투입하였다. 예측변수가 포함된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최종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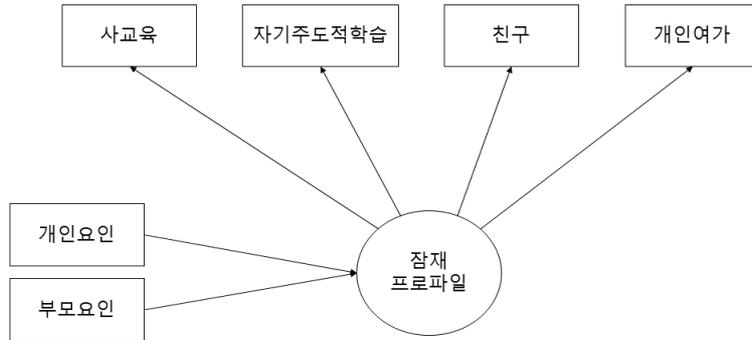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V.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생활시간	사교육	1,272	1.17	1.84	0.00	9.50	
	자기주도적학습	1,272	2.68	2.30	0.00	10.00	
	친구	1,272	.64	1.06	0.00	8.00	
	개인여가	1,272	1.48	1.47	0.00	8.00	
결정요인	개인	여학생	1,272	.51	.50	0	1
	희망교육수준	1,155	16.01	1.86	12	21	
	부모	희망교육수준	1,072	16.11	1.39	12	21
	SES	1,199	-.04	.86	-4.99	2.07	
	진로관련대화	1,272	3.18	.68	1.00	4.00	
	모근무	1,150	.69	.46	0	1	

생활시간 변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시간(2.68시간)이 사교육시간(1.17시간)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은 .64시간으로 1시간 미만인 반면, 개인여가시간은 1.48시간으로 1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요인의 경우, 성비는 거의 일대일로 나타났으며, 본인 및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은 평균적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약 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ES의 평균이 0에 근접하였으며, 부모와 진로관련대화정도의 평균값이 3.18로 나타나 가끔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근무하는 비율은 약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요 부분만 살펴보면, 사교육 및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은 다른 유형의 생활시간과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및 부모의 희망교육수준, SES는 사교육 및 자기주도적 학습시간과는 정적 관계, 친구와 어울리거나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시간과는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 상관분석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사교육	1**									
2.자기주도적 학습	-.134**	1**								
3.친구	-.164**	-.312**	1**							
4.개인여가	-.135**	-.376**	.240**	1**						
5.성별	.011**	.141**	-.110**	-.093**	1**					
6.본인희망교육수준	.111**	.238**	-.163**	-.203**	.011**	1**				
7.부모희망교육수준	.166**	.112**	-.091**	-.124**	-.077**	.245**	1**			
8.SES	.139**	.110**	-.084**	-.155**	.007**	.260**	.294**	1**		
9.진로관련대화	.008**	-.015**	.002**	-.029**	-.006**	.065**	-.014**	.144**	1**	
10.모근무	-.022**	-.036**	.034**	.022**	-.007**	-.021**	.024**	-.036**	-.042**	1**

\* $p < .05$ , \*\* $p < .01$

## 2.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 1)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 수 선정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른 최적의 잠재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단의 수를 2개 ~ 5개로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모형적합도 및 잠재 집단 분류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잠재프로파일분석 모형 적합도 및 잠재 집단 분류율

계층 수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MR test(p)	Bootstrapped test(p)
2	18497.696	18564.625	18523.331	.938	.025	.027
3	17856.840	17949.510	17892.333	.914	.000	.000
4	17390.661	17509.073	17436.014	.947	.000	.000
5	16980.522	17124.676	17035.734	.958	.004	.004

계층 수	잠재 집단 분류율					합
	1	2	3	4	5	
2	.850	.150				1
3	.219	.135	.646			1
4	.227	.581	.068	.124		1
5	.163	.570	.112	.117	.038	1

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위계적 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인 AIC, BIC, Adjusted BIC는 작은 값을 가질수록 모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Kline, 2005), 이 연구에서는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적합도 지수의 값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집단이 정확하게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비교 결과, 5개 집단 모형의 경우에 가장 높은 값(.958)을 가지며, 4개 집단 모형(.947), 2개 집단 모형(.938) 순으로 엔트로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Lo-Mendell-Rubin Test(LMR Test)는 k-1 집단 모형과 k 집단 모형의 로그최대우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LMR의 영가설은 k-1 집단 모형과 k 집단 모형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가설을 기각한 경우( $p < .05$ )에는 k 집단의 모형이 k-1 집단의 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모든 집단 모형에서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Bootstrapped 우도비 검증 역시 k-1 집단 모형과 k 집단 모형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영가설을 기각한 경우에 k 집단의 모형이 k-1 집단의 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석 결과, 모든 집단 모형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여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잠재 집단 분류율은 잠재 집단에 소속된 비율을 나타내므로 표본이 각 집단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모든 집단에 학생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개 집단 모형의 경우, 한 집단에 4% 미만의 학생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적합도, 잠재 집단 분류율과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최종 모형을 4개의 잠재 집단을 갖는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 2)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의 특징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의 활용 유형 및 특징, 즉 잠재프로파일 형태 및 평균의 분석 결과는 그림 2 및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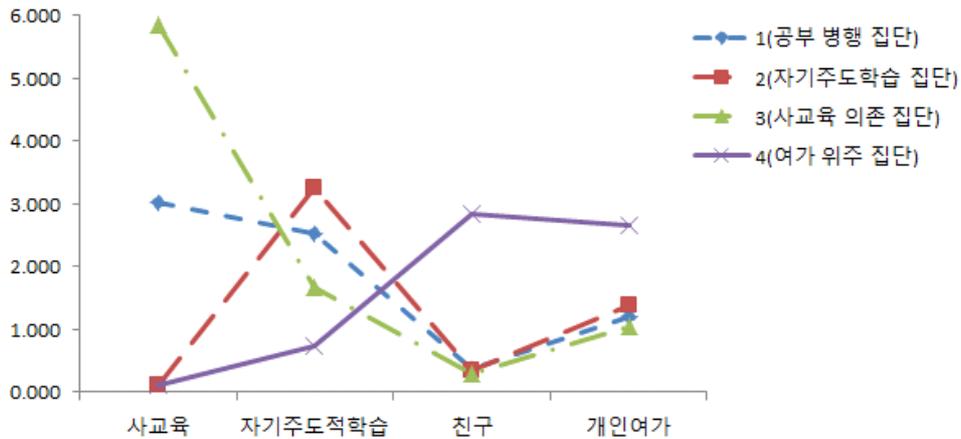


그림 2. 방과 후 생활시간의 잠재프로파일 형태

표 5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른 활동 영역별 평균 시간(단위: 시간)

잠재 집단	사교육	자기주도적학습	친구	개인여가
1(22.72%)	3.020	2.518	0.361	1.198
2(58.10%)	0.119	3.247	0.338	1.390
3(6.76%)	5.857	1.658	0.304	1.041
4(12.42%)	0.114	0.735	2.849	2.67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1’은 사교육을 받는 시간(3.020시간)과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2.518시간)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아 총 공부시간(5.538시간)이 5시간 이상이며, 개인적으로 여가활동(TV시청 및 오락)을 즐기는 시간(1.198시간)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0.361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으로 전체의 22.7%가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2’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시간(3.247시간)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전체의 58.1%가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3’은 사교육을 받는 시간(5.857시간)이 가장 높고, 총 공부시간이 7시간 이상으로 나타나며, 혼자 여가활동(1.041시간)을 즐기거나 친구(0.304시간)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전체의 6.8%가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4’는 사교육을 받는 시간(0.114시간)과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735시간)이 가장 낮고, 혼자 여가활동을 즐기는 시간(2.670시간)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2.849시간)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전체의 12.4%가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에 주목하여 각각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공부 병행 집단’, ‘자기주도학습 집단’, ‘사교육 의존 집단’, ‘여가 위주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3)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대하여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가 위주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바라본 경우에는 여학생인 경우, 본인 및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여가 위주 집단 대비 공부 병행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하게 여학생인 경우,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위주 집단 대비 자기주도학습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여가 위주 집단 대비 사교육 의존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바라본 경우에는 부모의 희망교육수준 또는 가정의 SES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집단 대비 공부 병행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의존 집단에 속할 승산에는 부모의 희망교육수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의존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바라본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도 공부 병행 집단에 속할 승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정요인의 관점에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관련 요인의 경우, 성별은 여가 위주 집단 대비 공부 병행 집단 또는 자기주도학습 집단에 속할 승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위주 집단보다는 공부 병행 집단, 자기주도학습 집단 또는 사교육 의존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련 요인의 경우,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위주 집단 대비 공부 병행 집단 및 사교육 의존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 집단에 속할 승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또한,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집단 대비 공부 병행 집단 또는 사교육 의존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ES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집단 대비 공부 병행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3개의 다른 유형의 집단 대비 여가 위주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진로관련대화 정도는 소속 집단에 속할 승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3 생활시간의 활용 유형의 결정요인

기준집단	비교집단	결정요인	계수	S.E.	odds ratio	
집단4 (여가 위주 집단)	집단1 (공부 병행 집단)	개인	여학생	.705**	.256	2.024
			희망교육수준	.269***	.084	1.309
		부모	희망교육수준	.313**	.102	1.368
			SES	.295	.163	1.343
			진로관련대화	-.285	.210	.752
			모 근무	-.671 <sup>†</sup>	.295	.511
	집단2 (자기주도학습 집단)	개인	여학생	.491 <sup>†</sup>	.227	1.633
			희망교육수준	.210**	.079	1.234
		부모	희망교육수준	.136	.100	1.145
			SES	.002	.146	1.002
			진로관련대화	-.260	.191	.771
	집단3 (사교육 의존 집단)	개인	여학생	.339	.341	1.403
			희망교육수준	.228 <sup>†</sup>	.104	1.256
		부모	희망교육수준	.363**	.117	1.438
			SES	.128	.207	1.136
진로관련대화			-.188	.274	.828	
모 근무	-.756 <sup>†</sup>	.377	.470			

기준집단	비교집단	결정요인	계수	S.E.	odds ratio	
집단2 (자기주도 학습 집단)	집단1 (공부 병행 집단)	개인	여학생	.214	.173	1.239
			희망교육수준	.059	.047	1.061
		부모	희망교육수준	.178**	.062	1.195
			SES	.293**	.112	1.340
			진로관련대화	-.026	.131	.974
	집단3 (사교육 의존 집단)	개인	여학생	-.152	.283	.859
			희망교육수준	.017	.080	1.017
		부모	희망교육수준	.228**	.085	1.256
			SES	.125	.169	1.133
			진로관련대화	.071	.228	1.074
집단3 (사교육 의존 집단)	집단1 (공부 병행 집단)	개인	여학생	.366	.308	1.442
			희망교육수준	.042	.083	1.043
		부모	희망교육수준	-.050	.087	.951
			SES	.167	.186	1.182
			진로관련대화	-.097	.246	.908
	모 근무	.084	.325	1.088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KCYPS의 중1 코호트 데이터 중 6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방과 후 생활시간을 시간활용의 성격에 따라 4개의 변수(사교육 시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개인여가시간)로 구분하였고, 잠재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은 4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대한 소속 비율은 자기주도학습 집단(58.10%), 공부 병행 집단(22.72%), 여가 위주 집단(12.42%), 사교육 의존 집단(6.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방과 후에 사교육보다는 자기주도적으로 3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학습하며, 약 23%의 학생은 사교육(3.020시간)과 자기주도학습(2.518시간)을 병행하여 평일에 5시간 이상의 시간동안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12%의 학생은 평일 기준으로 방과 후에 약 1시간 미만의 시간만을 공부에 투자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2.849시간)와 어울리거나 혼자서 TV 및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게임(2.670시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 6%의 학생만이 사교육(5.857시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생은 총 학습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평균적으로 사교육보다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선행연구(백병부, 황여정, 2011; 허은정, 이재덕, 2014)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잠재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위주 집단 대비 공부 병행 집단, 자기주도학습 집단 또는 사교육 의존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와 어울리거나 혼자 TV시청 및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사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배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3개의 집단 대비 여가 위주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방과 후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청소년은 공부보다는 자유로이 친구와 어울리거나 TV 시청 및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에 놓이고, 방과 후에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거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은 여가 위주 집단 대비 공부 병행 집단 또는 사교육 의존 집단의 소속 승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주도학습 집단 소속 승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기주도학습 집단 대비 공부 병행 집단 또는 사교육 의존 집단 소속 승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에게는 부모가 바라는 교육수준보다는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교육을 포함하여 학습하는 것은 부모의 희망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나 자기주도학습 집단 대비 공부 병행 집단에 속할 승산에 부모의 희망교육수준과 가정의 SES가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역시,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가정의 SES는 총 학습시간뿐만 아니라 학습시간 내에서 사교육의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모와의 진로관련대화의 빈도는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에 따른 잠재 집단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았다. 진로에 관하여 부모와의 대화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신희경, 김우영, 2005; 정주영, 2010), 이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방과 후에 보내는 생활시간의 패턴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고등학생이 방과 후에 보내는 시간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생활시간 실태조사 연구 등(김외숙, 박은정, 2012; 오만석, 2005; 통계청, 2014)에서는 각 영역별 평균 활동 시간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거나 특정 요인에 따른 평균 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관찰 가능한 방과 후 생활시간에 대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하위 집단을 나눴으로써, 하위 집단별로 4개 영역의 생활시간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이점을 갖는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거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사교육을 병행하며 공부하는 사실을 나타냈으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은 공부보다는 친구 또는 개인적으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학생보다도 더 낮은 비율의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급 및 학

년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이 감소한다는 연구(송성숙, 박수정, 윤지영, 2016; 양정호, 2012; 통계청, 2016)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사교육 참여 목적과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중학교 시점에서는 주로 선행학습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사교육에 의존하였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른 시점에서는 선행학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교육은 이미 완료가 되고, 대학 진학 목적으로만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패널조사가 3학년 2학기 시점의 생활시간의 구성여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전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며 진학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습은 학생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가정 결정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부모의 희망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직장 근무 여부가 잠재 하위 집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위주 또는 사교육 의존 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자기주도학습 또는 공부 병행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반면,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집단보다 사교육 의존 또는 공부 병행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늘리는 반면, 부모가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기주도학습 집단보다 사교육 의존집단에 속할 승산비(1.256)가 공부 병행 집단에 속할 승산비(1.195)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의해 사교육 참여 여부 혹은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결정된다는 기존의 결과(김경근, 황여정, 2009; 박소진, 박병영, 2003; 송경오, 이광현, 2010)와 일치하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교육 참여 시간의 증가는 학생의 자기결정보다는 부모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여가 위주 집단보다는 공부 병행, 자기주도학습 또는 사교육 의존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 후에 자녀 혼자 집에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공부보다는 친구와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여가시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

교 3학년에 이른 시기에도 방과 후에 부모의 부재가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김계중, 이경옥, 2009; 윤소영, 안창희, 하은아, 서선영, 전해인, 2004)에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에도 주목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SES는 자기주도 학습 집단과 공부 병행 집단의 분류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와의 진로관련대화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ES 및 부모와 진로관련대화가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백병부, 황여정, 2011; 정주영, 2010)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 가정의 SES 및 부모와 진로관련대화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학생들이 방과 후 생활시간을 보내는 패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입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방과 후 일관된 생활시간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필요와 가정환경에 의하여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육 의존 집단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사교육 의존 집단의 결정요인의 경우 부모희망 교육수준이, 여가 위주 집단의 결정요인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여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는 대학진학과 성년을 앞두고 준성인으로 취급받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도 학생들의 학습과 부모 관련 변수가 여전히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에게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입시 혹은 진로준비에 있어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횡단적 자료 분석을 이용하여 방과 후 생활시간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나,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시간의 유형 역시 학교급과 학년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KCYPS의 경우 초1, 초4, 중1의 3개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급의 보다 많은 시점에 대하여 잠재프로파일

을 분석한다면 풍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시점에 해당하는 잠재 프로파일을 분석한 이후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활용하여 잠재 하위 집단 간의 전이 확률을 분석한다면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결정요인을 개인 및 가족의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 변수로 성별과 본인의 희망 교육수준 변수만을 고려하였는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같은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잠재 하위 집단의 소속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면 보다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수업시간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시행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시간의 양과 유형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학교에 소속된 개인들의 경우 학교 특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교육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많은 데이터는 층화군집방식으로 표집되어 이처럼 학생이 학교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층잠재계층 분석(Multilevel Latent Class Analysis)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위계적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함과 동시에 학교요인 역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방과 후 생활시간의 활용 유형을 구분 짓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그쳤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또는 학업스트레스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을 탐색한다면 보다 풍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경근, 황여정 (2009). 중학생의 사교육 수요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5(1), 77-105.
- 김계중, 이경옥 (2009). 유치원과 유아영어교육기관 유아의 방과 후 일상생활 비교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6(2), 1-19.
- 김동원 (2008). 고3 수험생의 여가, 문화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41-57.
- 김수혜, 황여정, 김경근 (2010). 가정배경, 사회심리학적 매개요인들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6(1), 153-182.
- 김외숙, 박은정 (201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19-132.
- 김우찬, 이윤석 (2009). 부모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연구**, 20(1), 29-55.
- 김계엽, 성신명, 장건호 (2016).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1, 187-218.
- 김중운, 김현희 (2014). 일반청소년과 교정시설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515-538.
- 김진욱 (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49-177.
- 나영주, 황진숙, 이은희, 고선주, 박숙희 (2005). 청소년 생활시간의 내용과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이용. **대한국정학회지**, 43(12), 15-28.
- 박민자, 손문금 (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 박소진, 박병영 (2003). 학벌경쟁 사회의 사교육 소비: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사례. **사회발전연구**, 1, 49-84.
- 박수미 (2007).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2, 5-30.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백병부, 황여정 (2011). 일반계 고등학생의 유형별 학습시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2(1), 57-85.
- 박은영, 김진욱 (2016). 아동의 컴퓨터·모바일 게임시간과 부모영향요인 연구: 2009년과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1, 77-103.
- 송경오, 이광현 (2010). 일반계 고등학생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 특성에 대한 패널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301-326.
- 송성숙, 박수정, 윤지영 (2016). 다층모형을 이용한 사교육 참여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22(4), 109-134.
- 송유진 (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5(3), 31-53.
-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 양애경, 조호제 (2009). 중,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분석.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9(1), 341-358.
- 양정호 (2012).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1(2), 27-52.
- 오만석 (2005).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0(4), 299-330.
- 윤소영, 안창희, 하은아, 서선영, 전해인 (2004). 맞벌이 부부자녀를 위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제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3), 127-142.
- 은기수 (2010).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성별 차이. **정신문화연구**, 33(4), 395-427.
- 이은희 (2009). 입시스트레스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탄력요인의 역할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1(4), 5-29.
- 이현주 (2006). 초등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하루인터넷게임시간 및 인터넷게임중독. **교육방법연구**, 18(2), 119-137.
- 이현주 (2012). 고등학생의 개인공부시간과 수업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별, 사회·심리적 관계, 자기조절학습, 입시부담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5-38.

- 장상수 (2014). 가족배경과 학습시간, 성적. **한국청소년연구**, 25(2), 291-318.
- 정주영 (2010).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진로교육연구**, 23(1), 21-39.
- 정하나, 김유미 (2015).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과 생활시간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6), 741-753.
- 최호성, 이옥연 (2010). OECD 회원국 중등학생의 학습 투자 시간과 학업성취도 비교 분석. **직업교육연구**, 29(1), 45-61.
- 하문선 (2017).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종단적 변화와 가정환경,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 **청소년학연구**, 24(3), 25-59.
- 허균 (2014).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 진로고민과 진로장벽 경험 시점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0), 101-118.
- 허은정, 이재덕 (2014). 고등학생의 학습유형별 참여 시간이 학업성취도 및 학업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2(4), 121-139.
- 통계청 (2014).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보도자료). 통계청.
- 통계청 (2015). 『**생활시간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16).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보도자료). 통계청.
- Duncan, T. E., Duncan, S. C., & Strycker, L. A. (2011).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2nd ed.). NY: Psychology Press.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Guilford Press.
- Muthen, L. K., & Muthen, B. O. (2012). *Mplus user's guide*. Muthen&Muthen.
- Tein, J. Y., Coxe,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40-657.
- Wang, J., & Wang, W.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United Kingdom: John Wiley & Sons.

## ABSTRACT

### An analysis of after-school time use patterns among the third graders in high school

Park, Hyun-Jeong\* · Son, Yoon-Hee\* · Kim, Junok\*\*

This study analyzed the latent profiles of after-school time use amongst the third graders in high school with the predictors of the latent profiles. The 6th wave data of the middle school cohort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tudy was used for this analysis. After excluding missing values, the sample ended up consisting of 1,272 high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four latent profiles amongst the third graders in high school studied, distinguished by their after-school time use patterns. The self-regulated learning group had the largest number of students, followed by the study-oriented group, the recreation-oriented group and the private education group, sequentially. Second, gender, students' and parents' expected levels of education, SES and mother's work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latent profiles, while having had discussions with parents about their future careers was not significant. More specifically, the odds of belonging to study-oriented group, self-study group and private education group, compared to recreation-oriented group, increased as expected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and students themselves went higher, while the odds decreased when students' mothers had a job. Expected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was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odds of belonging to study-oriented group and private education group, compared to self-study group. These results

---

\* Seoul 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howed that the after-school time use patterns of adolescents differed across sub-groups and students' and parents' predictors were both significant in explaining after-school time use of adolesc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work in this area were discussed.

Key Words: after-school time use, private education time, self-regulated learning time, recreation activities, latent profile analysis, latent multinomial logit analysis

투고일: 2017. 3. 13, 심사일: 2017. 5. 2, 심사완료일: 2017. 5. 12